H·I·F·I·&·H·O·M·E·T·H·E·A·T·E·R

AUDIO

2007 10
Monthly Magazine

Special
주목할 만한 하이엔드 시스템 4기종

Focus
Accuphase DP800 · DC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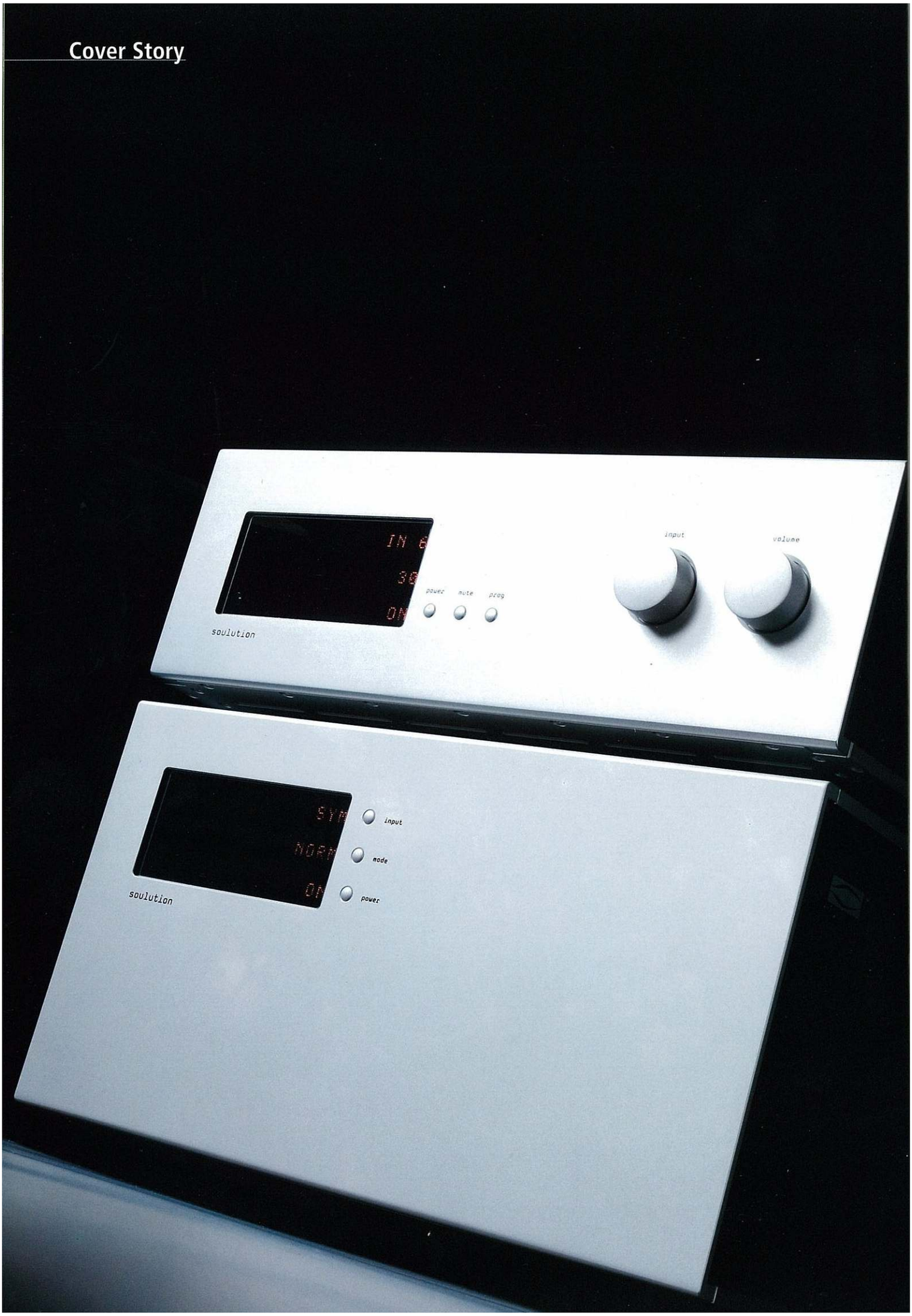
Piega TC10X

Rolf Kelch Baby Blue Grand

www.audioht.co.kr
www.월간오디오.com

soulution
nature of sound

9 771227 306008 10>
ISSN 1227-3066


soulution
power
mute
prog
input
volume
soulution
input
mode
power

Soulution 710·720

숫자는 잊고 무대의 크기를 보라

전체적인 피아노 연주에 있어 그 리얼리티는 눈을 감고 들었을 때 정말 사실적인 소리에 많이 다가왔음을 몇 번이고 되새기게 한다. 뿐만 아니다. 오케스트라의 표현도 대단히 넓고 웅장하며 포르티시모에 폭발적인 연주는 긴장감마저 감돌게 한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을 들어보면(빈 필하모닉, 시카고/DG) 기존에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했던 브랜드는 지워지고 소울루션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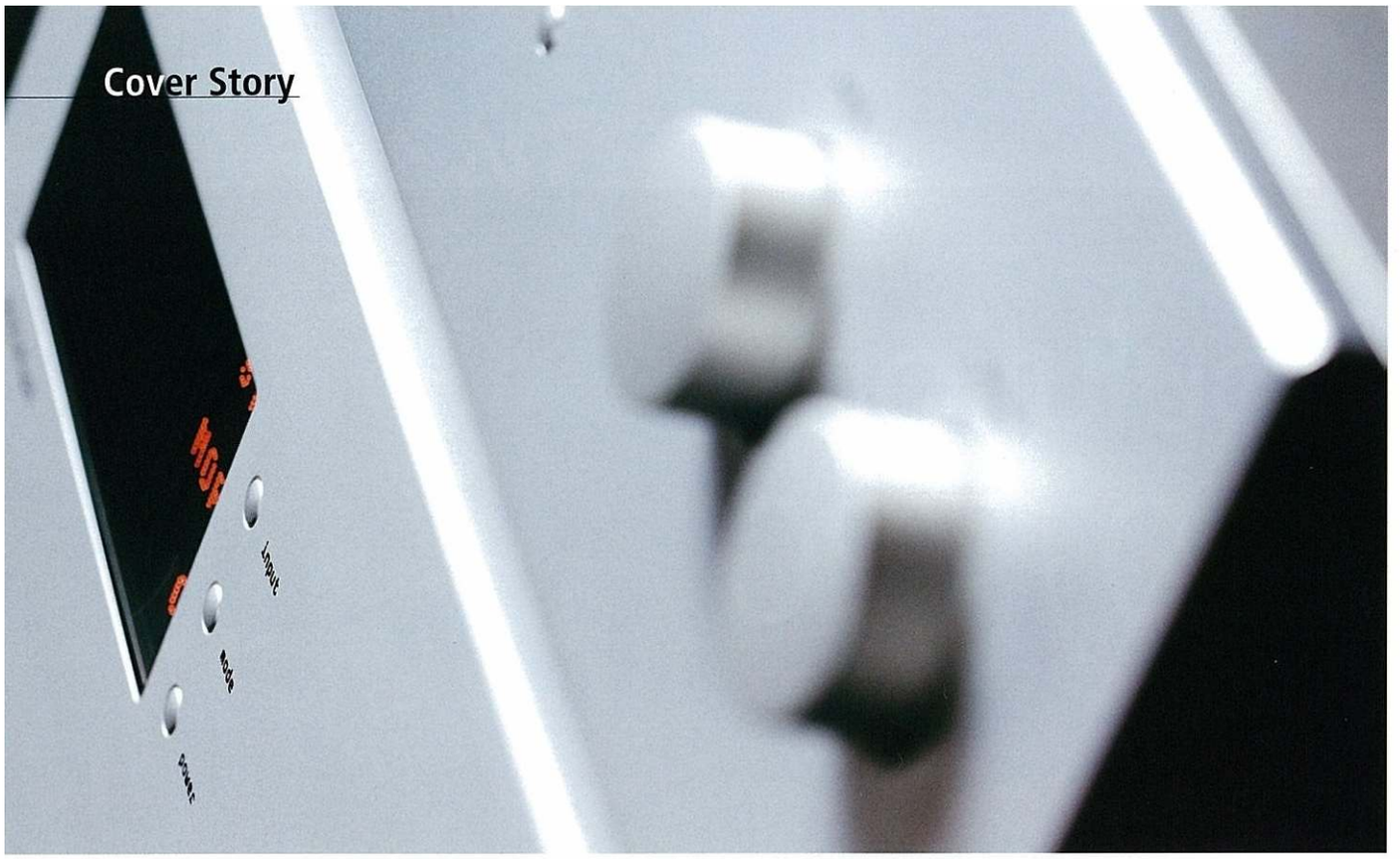
최성근

가장 좋은 오디오의 기준은 무엇일까. 요즘 국내에서 많은 초 하이엔드 기기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자랜드 2층을 한 번 둘러보아도 잘 알 수 있는데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케 한다. 시장이 이렇다 보니 요즘은 하이엔드 오디오의 명가로 군림하던 메이커조차 힘을 못 쓰는 것 같은 느낌이다. 요즘은 불과 5년 전과 비교해서 생소한 기술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반도체 기술 빰칠 정도로 우수한 기술처럼 느껴지곤 한다. 원래 하이엔드 메이커는 최신 집약 기술보다는 전통성을 내세웠는데 시장이 이렇게 변하니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그만큼 선택이 어려워졌다. 예전엔 전통성이 부족한 메이커가 초 하이엔드 기기를 만들어 시장에 내놓으면 혹독한 검증의 잣대를 대곤 했는데, 최근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신생 메이커의 10만 달러짜리 스피커를 필자와 동갑인 엔지니어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아마 초 하이엔드 시장의 추세가 '언컬러드' 성향의 음색으로 바뀌고 있고, 이론적으로 끝을 보고자 하는 성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유난이 빛나는 제품이 있었다. 이 제품을 꼭 한 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이번 달 표지 제품을 필자가 맡게 되었다.

Soulution. 회사 로고가 유선(流線)의 형상이다. 사실 이 회사의 제품을 사진으로만 봤을 때 하이파이 기기의 디자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깔끔한 현대적인 느낌이었다. 회사의 모토는 'Nature of Sound'인데 요즘 하이엔드 유저가 선호하는 음색과 딱 일치하는 이미지이다. 자료를 찾던 중 이와 같은 문구를 발견했다.

"리스너에게 있어 청취란 감정의 불꽃놀이로 가득 찬 감각적인 경험입니다. 기술은 반드시 투명하며 음악에 있어서 '하인'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Soulution의 '음악의 성질'을 이해하는 바입니다."

이 한마디에 제작자가 오디오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음악의 놀라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느꼈다.



사실 음악의 위대함이 없다면 누가 수천 수억을 들여 하이엔드 오디오를 구입하겠는가. 여기서 전해진 기대감은 소울루션의 소리로 분명히 대답해 주었다.

오디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증폭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증폭 방법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제품의 완성도이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완성도에 따른 물량 투입과 개발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물량 투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히트 싱크와 트랜스포머라고 얘기하고 싶다. 좋은 앰프는 출력이 높을수록 많은 열을 발생시키는데 대부분의 파워 앰프가 리니어 볼티지 레귤레이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 이상이 열로 표출된다(실제 출력 트랜지스터가 가장 많은 열을 뿜어내지만 매머드급 파워 앰프들은 채널당 수십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함으로 여유로워졌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밖으로 빨리 배출하는 것인데 이것이 히트싱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초하이엔드 기기들은 디자인을 의식해서인지 별도의 히트싱크를 장착하기보다는 몸체 전체를 히트싱크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소울루션 710 파워는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사실 히트싱크를 개발하는 것이 뭐가 어렵나 하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겠지만, 공진에 따른 음질 손실이(히트싱크 디자인을 잘못하면 공진에 의해 히트싱크가 미세하게 떨기도 한다. 이것이 잘못 만들어지면 소리로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 음색 튜닝의 일안으로 이것을 이용해 음색을 완성한 업체도 있다)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710 파워 앰프의 경우 아주 견고한 몸체에 접합 형태를 이루고 있어 실제 가장 간단한 테스트로 여기저기를 두들겨 보아도 섀시가 울린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트랜스포머이다. 사실 트랜스포머 용량은 앰프의 출력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이다. 710 파워 앰프의 경우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데 앰프를 제작하다 보면 같은 트랜스포머인데도 위치에 따라 트랜스포머의 울림이 지나치다거나 아주 조용하다거나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 위치가 앰프 회로에 둘러싸여 별도의 스틸 섀시에 고정되어 있고 트랜스포머의 아주 미세한 진동이 섀시에 전달될지도 모르는 염려를 고무 차단제로 완벽하게 막고 있어 트랜스포머가 섀시에 고정되어 있지만 완벽히 플로팅시킨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때 트랜스포머의 커버이자 섀시가 철로 구성된 것은 조금 특이한 경우이다. 동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철, 동, 알루미늄 각기 음색이 다르다), 아마도 제작자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토대로 철일 때가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미세한 부분을 들여다봐도 틈 하나 보이지 않는 710 파워 앰프의 출력은 120W이다. 이것이 적다고 생각할 독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4Ω, 2Ω에 대해 정확하게 2배의 출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우 든든한 전원부를 갖추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사실 이 앰프는 열이 좀 나는 편인데 이 정도 몸체가 아니었다면 이런 설계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크기가 상당한 편인데 본체를 뜯어보면 수많은 부품들로 꽉 채워진 것에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수성은 제 짝으로 안성맞춤인 720 프리앰프로 이어진다. 제어 부분에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720은 최초 작동 시 입력 단자를 설정할 수 있고, 파워 온에 따른 시작 음량, 음소거 시 - 레벨을 설정할 수 있

고, 신호의 대역폭, 각각의 입력 레벨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기기가 오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개발 시에 복잡한 테스트 과정을 걸쳐야 하기(시간도 많이 걸린다)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이엔드 메이커는 음질에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손대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제어(관련 기술이 없는 메이커는 거의 기계식 조작을 선호한다) 쪽이다. 어쨌든 가지고 있는 동안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버그를 찾아보겠다며 쉴 새 없이 리모컨을 쥐고 만지작거리며, 이것저것을 손대고 멀쩡한 세팅을 바꿔 보기도 했는데 필자가 가지고 있는 동안엔 단 한차례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720 프리앰프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제어 쪽의 전원이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듀얼 모노 방식으로 신호의 회로가 좌/우 채널로 완전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들 알겠지만 더 나은 S/N비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전원은 하나의 전원부를 통해서 공급된다.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특이한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출력 저항의 부하에 따른 전압 강하에 대응하기 위해 대용량 전원부 하나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프리앰프에서 가장 중요한 볼륨은 어테뉴에이션 네트워크의 형태로 80개의 비샤이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720 프리앰프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광대역폭 회로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720 프리앰프는 입력단의 신호는 무저항 고급 릴레이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효과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CD와 튜너, DVD 등의 기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3개의 기기 모두가 켜져 있을 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프리앰프의 실렉터는 분명 CD 플레이어 쪽으로 놓여 있지만 튜너나 DVD 쪽의 신호도 프리앰프에 입력될 경우 이 신호가 CD 플레이어 쪽 소스의 신호에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인데 CD 플레이어를 정지시켜 놓고 볼륨을 키워 스피커에 귀를 갖다 대면 다른 쪽 소스의 소리가 (이런 인티앰프, 프리앰프는 많다) 들리기도 한다. 720 프리앰프는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여러 개의 소스를 운영하는 이에게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720 프리앰프는 입력단 마다 신호의 대역폭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다.

보통 우리가 듣는 CD는 20Hz에서 20kHz의 신호로 녹음되어 있다. 그러니까 CD 플레이어에서 생성된 20Hz에서 20kHz를 앰프 회로에 넣었을 때 증폭되어 20Hz에서 20kHz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앰프는 SACD의 광 대역 주파수에 대응하기 위해 신호의 대역폭을 100kHz까지 확장하여 SACD에 완벽하게 대응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720 프리앰프는 DC(DC는 소리가 아니다)에서 1MHz에 이르는 광대역폭을 지향한다. 사실 SACD만 해도 100kHz까

> “리스너에게 있어 청취란 감정의 불꽃놀이로 가득 찬 감각적인 경험입니다. 기술은 반드시 투명하며 음악에 있어서 ‘하인’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Soulution의 ‘음악의 성질’을 이해하는 바입니다.”

수입원 : 소노리스 (02)581-3094

710 파워 앰프
- 가격 : 4,000만원
- 실효출력 : 120W(8Ω), 240W(4Ω)
- 댐핑팩터 : 50,000 이상
- S/N비 : 108dB 이상(5W/1kHz)
- 소비전력 : 300W
- 크기 : 48x28x53.5cm
- 무게 : 80kg
- 홈페이지 : www.soulution-audio.com

720 프리앰프
- 가격 : 3,400만원
- THD+N : 0.0006% 이하
- S/N비 : 130dB
- 크로스토크 : 105dB

지 왜곡 없이 출력되면 그만인데 1MHz라니 하고 의문을 품을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응하는 소스는 현재 없다. 하지만 1MHz에 이르는 광대역 신호폭이 필요한 이유는 20Hz에서 20kHz의 신호를 흘려보내더라도 그만큼 큰 폭으로 여유롭게 설계된 회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자그마한 왜곡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100kHz까지 대응하는 SACD라고 해도 말이다. 이것은 720 프리앰프가 매우 깨끗한 음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깨끗한 음의 성향이 기존 기기를 사용하던 사람들과 맞지 않을 수 있다. 놀랍게도 소울루션은 이런 사람들의 취향까지도 고려했다. 720 프리앰프의 조작 메뉴를 살펴보면 입력단별로 로우/미드/하이 라는 항목을 조절할 수 있는데 로우는 신호의 입력단으로부터 20Hz에서 20kHz만 통과할 수 있도록 필터링해 주는 것이며(실제 이론적으로 CD는 가감할 주파수가 없다), 미드는 100kHz까지(SACD 대응) 필터링, 하이는 1MHz까지 무한대로 필터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다. 사실 이론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따른 음질은 미세한 차이가 분명히 있으며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필자는 계속 1MHz까지 필터링 없는 세팅으로 썼다).

계속 써오다 보니 지면이 부족해 더 이상 쓰기 어렵지만 소울루션 710, 720은 정말 대단한 기술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710 파워 앰프는 120W의 출력을 가지게 된 걸까. 필자는 이 부분을 가장 높이 산다. 최근 고가의 초 하이엔드 앰프들은 엄청난 덩치에 대출력을 가짐으로 초 하이엔드 앰프의 위상을 높여왔다. 하지만 대출력 앰프는 대출력 앰프로써의 장점을 가지지만 단점도 반드시 따른다. 구동하기 매우 까다로운 스피커가 아니라면 우퍼의 여동이 적어 베이스의 깊은 소리와 팀파니의 울림 등 소리의 깊은 잔향을 맛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우선 비싼 만큼 스펙으로 압도해야 되다보니 이런 경향의 파워 앰프가 출시되고 있고 비로소 1kW를 넘어 2kW 파워 앰프가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앰프들은 스피커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고 구동이 매우(물론 대출력이면서 매우 섬세한 소리를 내는 앰프들도 있다) 어렵거나 아주 큰 음압을 낼 때나 필요하다. 어쨌든 120W의 출력으로 필자의 800D를 아주 아름답게 울린다.

800D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힘을 아주 적절하게 공급해 주는데, 구동뿐만 아니라 악기 고유의 울림과 질감은 그대로 재현하며 매우 섬세한 소리를 들려준다. 피아노 음이 딱 그러한데, '진짜' 최고 수준이다.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가 연주하는 리스트의 피아노 콘체르토 1번과 2번,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 B단조를 들어보면 낮은 옥타브의 피아노의 무게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연주자의 깊은 실력까지 느낄 수 있다. 전체적인 피아노 연주에 있어 그 리얼리티는 눈을 감고 들었을 때 정말 사실적인 소리에 많이 다가왔음을 몇 번이고 되새기게 한다. 뿐만 아니다. 오케스트라의 표현도 대단히 넓고 웅장하며 포르티시모에 폭발적인 연주는 긴장감마저 감돌게 한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을 들어보면(빈 필하모닉, 시카고/DG) 기존에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했던 브랜드는 지워지고 소울루션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플레트네프가 지휘하는 차이코프스키의 슬라브 행진곡 op.31을(러시안 내셔널/버진) 한 곡 더 듣는다면 소울루션으로 듣던 음의 색채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소리에 대해서 더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덧붙이면 현대 지향적인 언컬러드 성향을 완벽하게 재현하며 그 정점에 올라 서 있다는 앰프가 바로 소울루션이라는 것.

710, 720 조합에선 완성도 높은 소스 기기와 매칭한다면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오디오 시스템으로 최상의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A